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건강인식, 문화·여가활동참여의 이중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IADL to Life Satisfaction and the Double-mediating Effects of Self-Rated Health, Leisure Activities in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최장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ang Won Choi(jwchoi@bufs.ac.kr)

요약

본 연구는 장애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적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실태 조사에 응답한 만9세-만24세의 장애청소년 23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생활만족도, 주관적 건강인식, 문화·여가활동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참여의 인과적인 경로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생활만족도의 영향관계 가운데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의 순차적인 경로의 확인을 통한 실천적인 개입을 초점을 확인 할 수 있다.

■ 중심어 : | 장애 청소년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 생활만족도 | 주관적 건강인식 | 문화·여가활동참여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al pathways of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to establish a basis for concrete intervention in their daily l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39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aged 9 to 24 year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y in 2017. The SPSS macro process was used for analysis of the dual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strumental daily life performance capacity, life satisfaction, Self-Rated Health,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It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ated Health and cultural-leisure activities when the instrumental daily life performance capacity affected life satisfaction. This confirmed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instrumental daily life performance capacity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causal pathways of Self-Rated Health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leisure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focus of practical intervention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sequential pathways of Self-Rated Health and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n influence of instrumental daily life performance capacity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 keyword : |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 Instrumental Daily Life Performance Capacity | Life Satisfaction | Self-Rated Health | Participation in Cultural-leisure Activities |

1. 서론

장애인의 청소년 시기는 장애와 사춘기로 인한 내외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장애가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1][2]. 청소년 시기는 자기를 이해하며,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지만[3], 장애인에게 있어서 청소년의 시기는 장애와 신체적 발달의 불균형, 심리적 갈등과 사춘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발생함으로, 갈등에 대한 정확한 판별이 어렵고, 한 가지 측면의 접근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2]. 또한 또래에게 거부당하는 경험의 반복과, 생활 전반적 측면의 위축되는 경향, 일반학급에서의 거부감 및 소속감 부재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4][5]. 대다수의 장애청소년은 일반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주로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게 되며 장애가 없는 학생과 다른 특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이 장애청소년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 또래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최종적으로 스스로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만족감이 결여된 청소년의 시기를 경험하게 한다[6]. 장애인의 청소년시기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애청소년 관련연구는 주로 교육 취업과 같은 성인기를 준비하는 전환기로서의 시기임을 강조 할 뿐, 실제적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 시기에 집중하여 복지증진과 생활만족 증진을 위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며 최종적인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인과적 경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7][8].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며[9],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10-12]. 이와 같은 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문제는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나 소외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생활만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13]. 특별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한 장애청소년의 생활만족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 되었으며,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시험과정의 장애 미배려, 교육기회의 차별, 체벌 폭행이 포함된 폭력, 통학수단의 미지원, 사생활침해 등의 장애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4].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 외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생활 전반의 포괄적인 영역의 장애청소년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는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백은령(2003)의 연구에서는 개인요인가운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 종교, 건강상태, 문화·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고 있으며[15], 김명숙, 고종욱(2013)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여가활동요인으로 생산적 여가활동, 소비적 여가활동, 사회적지지 등이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16]. 또한 한태용, 이계석, 최성범(2015)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여가활동참여에 따른 만족감이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7].

이처럼 장애청소년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평가하는 변수로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을 확인 하고자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중요성은 장애인의 활동의 안정성과 독립적인 생활 뿐 아니라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립심과 자존감을 증진시켜 최종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18]. 특별히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최근 개인적인 영역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보다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며,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비해 기능적 역량과, 독립적 활동의 능력을 더욱 잘 확인 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측면을 드러내는데 있어 강점이 있으므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사회참여와 자기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기 때문이다[19]. 또한 장애인의 생활만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인식은[20][21] 객관적으로 측정된 건강의 수준과 개인의 주관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감 수준이 반영되는 종합적인 자기인식의 평가로[22],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건강의 수준을 심리·사회적인 측면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측정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되어 지고 있다[23][24].

생활만족의 향상을 위해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25-3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는 신체적 심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31][32], 여가활동의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3-35]. 특히 장애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신체적 활동의 측면, 사회·관계의 측면, 심리·정서적 측면의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어서 장애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문화 활동이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경험할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극히 적으며, 여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기쁨 만족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 속에 처해 있다[37]. 장애인 역시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여가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며, 여가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한다[38]. 이는 여가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추구하고, 일상생활능력의 저하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해소하고 완화시키는 내면적인 만족감 향상 뿐 아니라[39], 사회관계적 상호작용의 기회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다양한 교류와 지지체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31][40]. 하지만 여전히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41-43], 전반적인 여가활동의 심리적 특성과 개입 가능한 인과적 초점의 확인 보단 개인이 가진 주관적인

여가와 생활만족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41-43].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요약해 보면, 장애청소년의 생활 전반의 생활만족은 청소년의 시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건강한 자기인식을 구성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장애로 인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장애 청소년 스스로 느끼고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인식, 그리고 장애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문화·여가생활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청소년이 경험하는 생활만족에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며, 변인들이 가지는 구체적이며 인과적인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예방적, 개입과 중재의 초점을 얻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참여를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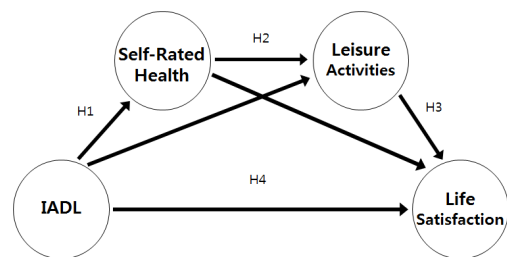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에 대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은 주관적 건강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과 주관적 건강인식은 문화·여가활동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과 주관적 건강인식, 문화·여가활동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참여는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 수행한 10차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장애인 6,549명 가운데, 만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23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립정도가 낮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수단에 대해 측정되었다. 전화 사용, 물건사기, 식사준비, 청소, 빨래,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8가지 항목의 수행능력을 확인하였으며, ‘지원 불필요(1점)’, ‘일부 지원필요(2점)’, ‘상당한 지원필요(3점)’, ‘전적인 지원필요(4점)’로 이루어져 수단적 일상생활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장애 청소년의 독립적인 활동 능력이 낮은 것으로 측정 되었다.

매개변수 1: 주관적 건강인식(Self-Rated Health)
 장애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는 주

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매우 좋음(1점)’, ‘ 좋음(2점)’, ‘보통(3점)’, ‘나쁨(4점)’, ‘매우 나쁨(5점)’의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점수로 코딩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게 나타나도록 수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진단을 통한 객관적인 건강상태보다 일상생활의 기능적 제한과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는 측면임으로(Wegner and Luy, 2009)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선행 변인으로서 적절한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이성은, 2012).

매개변수 2: 문화·여가활동참여(Leisure Activities)
 장애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은 1주일간 참여한 문화·여가생활 참석 여부에 대한 응답을 합산 한 결과로,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TV시청,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 검색,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문화예술 참여(독서, 미술·서예), 취미·자기개발(요리, 기술자격증), 스포츠(축구, 테니스), 사회봉사·종교 활동, 여행(관광 낚시), 해외여행, 사고 일(친구·친척 모임), 단체·기관 자조모임, 가족 일(외식, 쇼핑), 휴식(사우나), 기타로 문항이 구성되어있으며, ‘1=예, 2=아니오’를 ‘0=아니오, 1=예’로 변환하여 총합을 계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생활만족도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의 수, 살고 있는 집, 요즘 건강상태, 여가활동, 현재의 삶 6문항을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원 조사의 9개의 문항 가운데 장애청소년이 해당하지 않는 영역의 문항 한 달 수입, 직업, 결혼을 제거하였다. 각 문항은 ‘1=매우만족, 2=약간만족, 3=약간 불만족, 4=매우 불만족’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역점수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도록 수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장애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선정 하였으며, 장애청소년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통제변수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통계변수의 구체적 구성은, 성별은 '남자=1, 여자=2', 연령은 출생년도를 계산하여 법적 기준의 9세부터 만 24세 청소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장애유형은 총 15개 유형인 신체적 장애(1=지체장애, 2=뇌병변장애, 3=시각장애, 4=청각장애, 5=언어장애, 13=안면장애, 15=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6=지적장애, 7=자폐성장애, 8=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9=심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4=장루·요루장애)로 구분되며, 장애등급은 '1=1급, 2=2급, 3=3급, 4=4급, 5=5급, 6=6급'을 구분되며 1등급일 때 중증이며 6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경증임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95% 신뢰구간(p<.05)에서 실시되며,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ver 24.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의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Process macro를 활용한 이중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장애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2017년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36,2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 6,549명 가운데, 만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239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장애 청소년의 성별은 남성의 빈도가 142명 59.4%, 여성의 빈도 97명 40.6%로 나타났으며, 출생연도 1995년 22명 9.2%, 1996년 24명 10%, 1997년

20명 8.4%, 1998년 17명 7.1%, 2000년 26명 10.9%, 2002년 16명 6.7%, 2003년 12명 5%, 2004년 10명 4.2%, 2005년 7명 2.9%, 2006년 13명 5.4%, 2007년 12명 5%, 2008년 7명 2.9%, 2009년 13명 5.4%, 2010년 12명 5%로 나타났다.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최종학력에 대한 응답으로, 무학이 7명 2.9%, 초등학교 68명 28.5%, 중학교 39명 16.3%, 고등학교 102명 42.7%, 3년제 이하 대학 7명 2.9%, 4년제 이상 대학 16명 6.7%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대한 응답으로 지체장애 16명 6.7%, 뇌병변 장애 24명 10%, 시각장애 8명 3.3%, 청각장애 13명 5.4%, 언어장애 6명 2.5%, 지적장애 129명 54%, 자폐성장애 29명 12.1%, 정신장애 2명 0.8%, 심장장애 2명 0.8%, 간장애 3명 1.3%, 안면장애 1명 0.4%, 장루·요루장애 2명 0.8%, 뇌전증 4명 1.7%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에 대한 응답으로 1등급이 53명 22.2%, 2급 84명 35.1%, 3급 70명 29.3%, 4급 9명 3.8%, 5급 9명 3.8%, 6급 9명 3.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가운데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능이 34이하로 나타나는 1급 장애는 31명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직업적 훈련이 가능한 2급과 3급의 지적·자폐성장애는 124명으로 나타나 설문조사를 스스로 판단하고 응답 할 수 있는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9)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남성	142	59.4
	여성	97	40.6
Birth	1995	22	9.2
	1996	24	10.0
	1997	20	8.4
	1998	17	7.1
	1999	17	7.1
	2000	26	10.9
	2001	11	4.6
	2002	16	6.7
	2003	12	5.0
	2004	10	4.2
	2005	7	2.9
	2006	13	5.4
	2007	12	5.0
	2008	7	2.9
2009	13	5.4	
2010	12	5.0	
Education	무학(만6세이상)	7	2.9

	초등학교	68	28.5	
	중학교	39	16.3	
	고등학교	102	42.7	
	대학(3년제이하)	7	2.9	
	대학(4년제이상)	16	6.7	
Types of disability	지체장애	16	6.7	
	뇌병변장애	24	10.0	
	시각장애	8	3.3	
	청각장애	13	5.4	
	언어장애	6	2.5	
	지적장애	129	54.0	
	자폐성장애	29	12.1	
	정신장애	2	.8	
	심장장애	2	.8	
	간장애	3	1.3	
	안면장애	1	.4	
	장루·요루장애	2	.8	
	뇌전증 장애	4	1.7	
	disability rating	1급	53	22.2
		2급	84	35.1
3급		70	29.3	
4급		9	3.8	
5급		9	3.8	
6급		9	3.8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분석 결과,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장애청소년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r=-.338, p<.001$), 여가활동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r=-.397, p<.001$),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369, p<.001$). 장애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문화·여가활동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r=.311, p<.001$),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512, p<.001$). 장애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참여는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392, p<.001$).

본 연구의 주요연구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술 통계분석 결과, 왜도(Skewness)의 기준점인 절대 값 3을 초과하지 않으며, 첨도(Kurtosis)의 절대 값이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통해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정규성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2. Technical Statistics and Correlation

Variable Name	IADL	Self-Rated Health	Leisure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IADL	1			
Self-Rated Health	-.338***	1		
Leisure Activities	-.397***	.311***	1	
Life satisfaction	-.369***	.512***	.392***	1
M	1.962	3.289	4.138	16.849
SD	0.945	0.994	2.301	3.159
Skewness	.778	-.735	.472	-.090
Kurtosis	-.336	-.033	-.290	.013

p<.01, *p<.001

3. 장애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 참여의 이중매개효과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단계인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주관적 건강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매개변수1 주관적 건강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coeff=-.3528, p<.001$), 이때 설명력은 14.89%로 나타났다($R-sq=.1489, F=8.1517, p<.001$). 또한 LLCI와 ULCI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 Double-mediating effects1

	coeff	se	t	p	LLCI	ULCI	R-sq	F
Constant	-39.874	28.144	-1.417	0.158	-95.323	15.575		
X → M1	-0.353	0.081	-4.368	0.000	-0.512	-0.194		
sex	-0.287	0.123	-2.331	0.021	-0.530	-0.044	0.149	8.152
birth	0.022	0.014	1.576	0.117	-0.006	0.050		
types	0.023	0.024	0.955	0.340	-0.024	0.070		
rate	-0.006	0.060	-0.093	0.926	-0.124	0.113		

※ X= IADL, M1= Self-Rated Health, M2= Leisure Activities, Y= Life Satisfaction p= .0000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인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주관적 건강인식이 문화·여가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개변수1 주관적 건강인식은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coeff=.5296, p<.001$),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4979, p<.01). 이때 설명력은 23.81%로 나타났다(R-sq=.2381, F=12.0813, p<.001). 또한 LLCI와 ULCI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Double-mediating effects2

	coeff	se	t	p	LLCI	ULCI	R-sq	F
Constant	32.830	62.058	0.529	0.597	-89.439	155.100		
M1→ M2	0.530	0.144	3.682	0.000	0.246	0.813		
X → M2	-0.498	0.185	-2.699	0.008	-0.861	-0.134	0.238	12.081
sex	0.453	0.274	1.655	0.099	-0.086	0.992		
birth	-0.016	0.031	-0.500	0.618	-0.076	0.045		
types	-0.012	0.053	-0.233	0.816	-0.116	0.091		
rate	0.381	0.132	2.888	0.004	0.121	0.641		

※ X= IADL, M1= Self-Rated Health, M2= Leisure Activities, Y= Life Satisfaction p= .0000

이중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세 번째 단계인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관적 건강인식, 문화·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개변수1 주관적 건강인식은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1.241, p<.001),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는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oeff=.2904, p<.001),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5095, p<.05). 또한 전체 설명력은 35.31%로 나타났으며(R-sq=.3531, F=18.0101, p<.001), LLCI와 ULCI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 Double-mediating effects3

	coeff	se	t	p	LLCI	ULCI	R-sq	F
Constant	-22.031	78.704	-0.280	0.780	-177.101	133.040		
M1 → Y	1.241	0.188	6.616	0.000	0.871	1.611		
M2 → Y	0.290	0.083	3.490	0.001	0.127	0.454	0.353	18.010
X → Y	-0.510	0.237	-2.146	0.033	-0.977	-0.042		
sex	-0.298	0.349	-0.855	0.394	-0.986	0.389		
birth	0.018	0.039	0.454	0.651	-0.059	0.095		
types	-0.121	0.067	-1.813	0.071	-0.252	0.010		
rate	0.045	0.170	0.262	0.794	-0.291	0.380		

※ X= IADL, M1= Self-Rated Health, M2= Leisure Activities, Y= Life Satisfaction p= .0000

이중매개효과 검증의 총효과와 직접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중매개효과의 총효과를 확인한 결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참여를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coeff=-1.1462, p<.001). 또한 LLCI와 ULCI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coeff=-.0595, p<.05). 이와 같은 결과는 독립변수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 Double-mediating Total effect, Direct effect

	coeff	se	t	p	LLCI	ULCI	R-sq	F
Constant	-68.111	89.124	-0.764	0.446	-243.702	107.481		
Total effect	-1.146	0.256	-4.481	0.000	-1.650	-0.642	0.155	8.550
Direct effect	-0.510	0.237	-2.146	0.033	-0.977	-0.042		
sex	-0.567	0.390	-1.454	0.147	-1.336	0.202		
birth	0.044	0.044	0.994	0.321	-0.043	0.131		
types	-0.092	0.076	-1.223	0.223	-0.241	0.057		
rate	0.148	0.190	0.775	0.439	-0.228	0.523		

※ X= IADL, M1= Self-Rated Health, M2= Leisure Activities, Y= Life Satisfaction p= .0000

이중매개효과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매개변수1 주관적 건강인식을 경유하여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1의 분석결과, BootLLCI값 -.7086과 BootULCI값 -.236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를 경유하여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2의 분석결과, BootLLCI값 -.1298과 BootULCI값 -.0176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를 경유하여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3의 분석결과,

BootLLCI값 -.3284와 BootULCI값 -.0334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중매개 효과의 모든 간접효과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이중매개효과 검증은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이중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7. Double-mediating In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Total	-0.637	0.142	-0.949	-0.385
Ind 1 X → M1 → Y	-0.438	0.119	-0.709	-0.236
Ind 2 X → M1 → M2 → Y	-0.054	0.027	-0.130	-0.018
Ind 3 X → M2 → Y	-0.145	0.073	-0.328	-0.033

* X= IADL, M1= Self-Rated Health, M2= Leisure Activities, Y= Life Satisfaction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 수행한 10차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장애인 6,549명 가운데, 만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23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으로 장애청소년의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장애청소년의 학교 외 생활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적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검증을 위해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참여를 이중매개 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매개변수1 주관적 건강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coeff=-.3528, p<.001), 매개변수1 주관적 건강인식은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coeff=.5296, p<.001),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4979, p<.01). 이는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개변수1 주관적 건강인식은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eff=1.241, p<.001),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는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oeff=.2904, p<.001),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5095, p<.05). 최종적으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참여를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coeff=-1.1462, p<.001),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oeff=-.0595, p<.05). 이러한 결과는 간접효과를 통해 명확하게 이중매개효과의 검증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매개변수1 주관적 건강인식을 경유하여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1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통해 주관적 건강인식의 단순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를 경유하여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3이 유의한 것을 통해 문화·여가활동참여의 단순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독립변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매개변수1 주관적 건강인식과 매개변수2 문화·여가활동참여를 경유하여 종속변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2의 분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수단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순차적이며 인과적인 경로를 확인하게 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구체적인 변인의 경로를 통해 장애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장애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인식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주관적 건강인식의 영향이 문화-여가활동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차적인 제시의 수준을 넘어 우리가 어떤 초점에 집중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하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있어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지원필요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여가활동참여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 구체적인 생활만족 증진을 위한 개입의 초점을 파악하며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만족 증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은 여전히 사회취약계층이며, 언제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의 대상이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2018)의 장애 인구 추이에 대한 결과 전체 인구의 4.9%가 장애인이며 이 가운데 발달장애 청소년은 전체 발달장애 인구의 26.3%를 차지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44]. 하지만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집단임에도 여전히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의 시행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겪는 갈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장애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식의 중요성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의 결

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현장의 관심이 필요하며, 실제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적용과 장애청소년 스스로를 건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마음 튼튼교실 통합그룹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이 서로 함께 만나 다양한 지각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 스스로를 재인식함으로써 주관적인 건강에 대한 평가를 증진 시키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장애청소년의 건강한 주관적 건강인식 형성을 위한 관심과 개입은 직접적인 생활만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시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한 장애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참여의 중요성은 여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장애 청소년이 사회를 경험하고 관계망을 확장 할 수 있는 교육적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게 한다. 이는 성인 장애인에게 있어서 여가-문화 활동참여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기능적 재활훈련이 주된 목적임에 반해, 장애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문화 활동참여는 보다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가치관 형성의 과정으로 그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다[36].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정책적인 서비스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전국 복지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문화여가지원 사업을 더 강화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청소년까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횡단연구와 2차 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측정된 시점만을 일반화 하여 해석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영향관계에 대한 종단연구를 수행함으로 더욱 심화되고 깊이 있는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요변인으로 설정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관적 건강인식, 문화-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제한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함으로 본연구의 변인들 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폭넓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후속연구를 통해 장애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생활만족을 이룰 수 있는 학문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민천식, 오재석, “통합교육 상황에서 지적장애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발달장애연구, 제11권, 제2호, pp.97-122, 2007.

[2] 박수경,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 통합*, 집문당, 2008.

[3] 나용기 외, “학습장애학생의 자아개념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2권, 제4호, pp.291-314, 2011.

[4] 박승희, *한국장애학생 통합교육: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관계 재정립*, 서울: 교육과학사, 2003.

[5] 지은숙, 박승희,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특수학급 지적장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5권, 제3호, pp.111-136, 2009.

[6] 이성아, 박승희,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자기장애 수용을 포함한 자기이해 교육,” 특수교육학연구, 제50권, 제3호, pp.23-52, 2015.

[7] 박승희, 김유리, 이효정, 이희연, 최하영 역, *지적장애 학생의 중등이후교육: 대학을 생각하다*,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8] 이지연, *중등단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9] R. A. Cummins, E. Gullone, and A. L. D. Lau, “A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homeostasis: The role of person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Vol.16, No.7, pp.7-46, 2003. doi:10.1007/978-94-010-0271-4_3

[10] 조용운, 조경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삶의질-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2호, pp.276-309, 2014.

[11] 이한나, 박단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 수준, 박탈경험, 고립감 및 생활만족도 연구,” 재활복

지, 제16권, 제1호, pp.1-23, 2012.

[12] K. Sheppard-Jones, et al, “Quality of life dimension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comparative study,” *Mental Retardation*, Vol.43, No.4, pp.281-291, 2005.

[13] M. B. Beckles, *Poverty and Disability: Advocating to eliminate social exclusion*, National Cent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rinidad and Tobago, 2004.

[14] 구신실 외, “장애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권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제61권, 제4호, pp.1-18, 2018.

[15] 백은령,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6] 김명숙, 고종욱,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46-259, 2013.

[17] 한태용, 이계석, 최성범, “후천적 지체 장애인의 신체적 여가활동참여가 고독감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4권, 제2호, pp.905-316, 2015.

[18] 김정운 외, “재가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1권, 제1호, pp.15-26, 2013.

[19] 이달엽, “제 5 차 장애인고용패널 장애인 삶의 질과 만족도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pp.706-720, 2016.

[20] 이성은, “만성질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1호, pp.234-262, 2012.

[21] 김성희,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재활복지, 제20권, 제3호, pp.17-43, 2016.

[22] M. E. Prieto-Flores, A. Moreno-Jimenez, G. Fernandez-Mayoralas, M. W. Rosenberg, F. Rojo-Perez, and M. J. Forjaz,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domains in subjective health in old a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06, pp.27-39, 2012.

[23] M. Pinquart, “Correlates of subjective health in older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Vol.16, No.3, pp.414-426, 2001.

[24] 김명일, 이상우, 김혜진, “서울시 거주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연구: 다층모형 적용을 통한 개인의 노후 준비와 지역효과검증,” 한국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3호, pp.327-360, 2013.

[25] 안병욱, 임영삼, “교육체육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만족,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3호, pp.7-16, 2010.

[26] 박세영, “생활만족에 대한 직무만족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24권, 제2호, pp.331-353, 2011.

[27] 석부길, 조광민, 김수현, “직장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 스포츠 관여도와 여가민족 및 생활만족의 구조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3권, 제4호, pp.209-222, 2009.

[28] 박정민,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여가활동유형이 생활만족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극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9] 윤소영, *문화로 행복한 삶*,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30] 송병식, *문화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1] 신중호, *장애인의 문화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2] 전리상, 조홍중, “장애인의 여가생활유형, 문화생활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제22권, 제4호, pp.151-164, 2018.

[33] 우선미,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4] 윤은경, *성인 장애인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5] 이구상, *정신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6] 이동진 외,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4호, pp.137-155, 2010.

[37] 정영숙, 신은주, “지체장애학생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정책 방안,” 복지행정논총, 제21권, 제2호, pp.1-23, 2011.

[38] 서향진,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9] 이지수,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pp.277-299, 2011.

[40] 이중섭, “재가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복지, 제13권, 제3호, pp.111-140, 2009.

[41] 문현주, *중년기의 여가라이프스타일, 여가인지, 여가충족 및 노후준비행동의 관계*,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42] 주형철, 김수현, “대학생들의 여가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그리고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제8권, 제4호, pp.57-72, 2013.

[43] 오세숙, “대도시 대학생의 여가라이프스타일과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제8권, 제2호, pp.15-25, 2013.

[4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눈에 보는 2018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저 자 소 개

최 장 원(Jang-Won Choi)

정회원



- 2005년 2월 : Georgia College & State University MBA 졸업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0년 4월 : 덕인복지재단 대표이사
- 2010년 9월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4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 2019년 현재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